

사설

기부문화 형성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이제 11월이다. 다음 달이면 연말이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다. 이때쯤 이 되면 돈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은 더욱 어렵다. 험벗고 굶주려서 힘들고 사람이 그리워서 슬프다. 때문에 이들 불우이웃에 대한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 간단 없는 경제적 중병을 앓으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어왔다. 그런데 그 중병의 영향이 대다수 서민들에게만 미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원정골프, 원정도박, 해외 유명 휴양지에 서의 휴식 등을 위해 수출로 어렵게 번 돈을 겁 없이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웰빙 열풍에 불을 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휴양지로, 대박을 위해서 정선골프 도박장 등으로 날아가고 있다.

반면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민초들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가진 자들의 별세 계행진을 바라만 보고 있다. 그래서 허탈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적 생존을 위해 단 몇 푼이라도 벌 수만 있다면 큰 행운이라 생각하며 새벽 인력시장에 노동력을 팔러 나간다. 장애인들의 삶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모든 면에서 블랙홀에 빠져있는 장애인들은 더욱더 사회적 주류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을 비롯한 변방 인들의 절대적 빈곤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기부문화가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자기 자신만 위하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가 높다."고 심리학 전문지 '심리과학'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대신 남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수명에 별 이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장수를 위해서라도 이타적 삶을 영위해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기업가들의 기부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을 기부세대라고도 부른다. 미국 철강 왕이며 자선가로 유명했던 앤드루 카네기가 일생동안 기부한 액수는 모두 3억 2,465만7,399달러였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도 528억 달러(약63조 원)정도로 추산되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내 기부 기업이 1위인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 총 재산의 60%인 235억 달러를 이미 기부했다. 특히 그는 자국(自國)도 아닌 아프리카와 인도의 어린이들에게 백신도 공급했다. 다분히 국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 깃든 기부문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기부는 선택이나 결처레가 아닌 도덕적 의무이자 제2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그들의 의식 세계에 각인되어 있다. 재화라는 것은 사회에서 잠시 차용한 것이므로 생전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이 기업가들 사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피에르 오미디어 아베이 창업자도 죽기 전까지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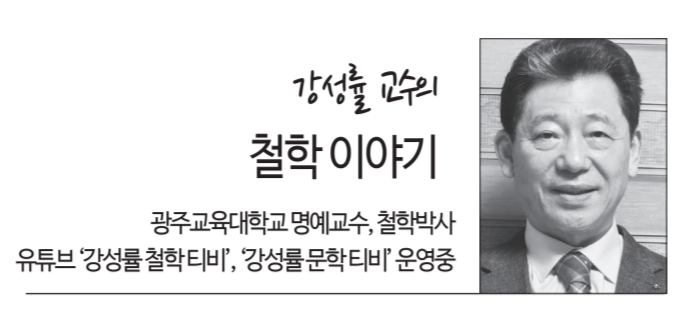
우리 사회도 이제는 기업가를 비롯한 가진 자들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심심일뿐 아니라 기부하는 문화를 창출해 가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기 자신과 가족을 비롯한 혐의적인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 상부상조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함께 사는 삶이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단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송암 발행인 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권광찬 편집국장 박진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1596년~1650년, 해석기하학의 창시자. 근세철학의 아버지)는 프랑스 투렌의 작은 도시 라에에서 부유한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 라에는 1996년 데카르트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도시 이름을 '데카르트'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32세 때인 1628년, 이 고향을 떠나 네덜란드로 건너 간다. 그리고 20여 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게 된다. 종교적, 사상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이유 때문으로 보이는데, '자유'의 땅 네덜란드에서 그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그러던 중, 암스테르담에서 헬레네 앙스(에레네)라는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마침내 프란시느라는 딸까지 낳았다. 3년 후에는 알크마르(네덜란드 서북부에 있는 도시. 지면이 바다 표면보다 낮으며, 치즈 및 가축 시장으로 유명함) 가까이 있는 은둔처에 모녀를 데려다가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의 딸은 다섯 살 때 성홍열(급성 감염병. 발열과 인후통,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남)에 걸려 죽고 말았다. 이에 그는 크게 상심하여 슬픔에 빠졌다고 한다. 그는 친구에게 "딸의 죽음



강성호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호 철학티비', '강성호 문학티비' 운영중

자녀 잃은 슬픔-데카르트와 헤겔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했다.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때문인지, 그는 숨진 딸을 '살려내기' 위해 인형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인형을 늘 곁에 지니고 다녔다. 덴마크로 떠나는 배 위. 선원들은 그의 배상에서 인형을 발견하고는 불길하게 여겨 바다에 던져버렸다.

평소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으며, 다른 동물들은 그저 기계일 뿐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철학사에 있어서 '합리주의의 교조'로 떠받들어지는 철학자가, 시계 태엽과 금속 조각으로 죽은 딸의 대용품을 만들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철학과 그 자신의 삶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독일의 위대한 관념론 철학자 헤겔(1770년~1831년)은 35세 되던 해, 예나 대학의 원외 교수 철학자로 채용된다. 2년 후에는 헤겔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저서 『정신현상학』이 출간된다. 이 무렵 살고 있던 셋방의 주인이 사망한 후, 헤겔은 그(셋방 주인)의 아내 살로테와 정을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져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

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음력 9월 14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text: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and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